

광주 이선제 묘지, 보물 된다

〈墓誌·망자의 행적을 알린 글〉

‘태종실록’ 편찬 집현전 학사
행적 연구 사료 가치 인정
위패 형태 분청사기 드물어
광주박물관 9월 전시 예정
호 따서 ‘필문로’ 명명도

광주에는 ‘필문로’(筆門路)가 있다. 조선시대부터 남광주역까지의 앞길 팔차선 도로를 부르는 명칭이다.

지난 1988년 ‘필문로’라는 명칭으로 지정된 이 도로는 필문(筆門) 이선제(李先濟·1390~1453)의 학덕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붙여졌다. 필문로는 정충신 장군을 기리는 금남로와 김덕령 장군을 기리는 충장로와 더불어 광주의 중요한 도로다.

조선 전기 호남을 대표하는 인물인 이선제는 세종대 집현전 학사를 지냈다. 본관이 광주(光州, 광산)인 이선제는 1419년(세종 1) 문과에 급제해 집현전 부교리, 강원도 관찰사, 예문관 제학(중 2품) 등을 지냈다.

‘고려사’의 내용을 수정하고 ‘태종실록’을 편찬하는 데 참여했으며 병조참의와 강원도 관찰사를 지냈다. 사후에는 예문관 제학에 추증됐다.

이선제의 묘지(墓誌·망자의 행적을 적어 무덤에 묻은 돌이나 도판)가 보물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이 24일 공개한 보물 지정 예고 유물인 이선제 묘지는 지난해 9월 일본 소장자가 기증한 것으로, 이선제가 세상을 떠난 이후 후손들이 그의 생애를 적어 무덤에 묻은 기록물이다.

이 묘지는 1998년 6월 일본으로 밀반출됐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일본인



지난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일본 소장자에게 기증받은 이선제 묘지(墓誌)는 명확한 제작 연대와 독특한 위패 형태를 갖춘 유물로 사료적 가치가 크다.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소장가(유족 도도로키 구니에 여사)로부터 지난해 9월 기증받았다. 당시 도도로키 구니에 여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기증식에서 “이선제 묘지는 남편이 가장 사랑하던 고미술품 중 하나였다. 남편은 기증요청을 받고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는 슬픔과 묘지를 기다리는 이선제 자손의 마음을 떠올리며 고민했다”며 “이선제 묘지가 한일 우호의 끈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은 조선실에서 이선제 묘지와 관련해 특별 전시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묘지는 높이 28.7cm, 장폭 25.4cm 크기의 유물로, 조선 단종 2년(1454)에

상감 기법으로 만들어진 분청사기다. 묘지를 만드는 데 쓴 태토(胎土)와 유약의 색은 15세기 중반 제작 분청사기의 특징을 반영한다. 명확한 제작연대, 위패(位牌) 형태의 기형이 희소하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광주에 있는 무덤에서 알 수 없는 시기에 도굴됐다 1998년 6월 김포공원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됐다. 묘지에 이선제의 삶과 가족에 대해 말해주는 명문(銘文) 248자가 새겨져 있다.

무엇보다 15세기 재질, 장식, 형태 등에서 조선 초기 묘지 제작의 과도기적 경향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선제 묘지는 올해 3월 국립광주박

물관으로 옮겨졌다. 광주에서 도굴돼 반출된 유물이기 때문에 광주로 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장제근 국립광주박물관학예사는 “현재 이 묘지는 박물관 유물로 등록이 된 상태고 오는 9월에 전시가 될 예정”이라며 “9월 전시는 이선제 묘지를 비롯 지역에서 기증받은 47기의 묘지도 함께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이선제 문중에서 찾아와 전시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9월 전시회 때 문중에서 유물을 복제해 다시 이선제 무덤에 넣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어린 별’이 된 304명의 녀

김완 시집 ‘바닷속에는 별들이 산다’ 출간

“서정시를 쓰기 힘든 시대이다. 세 번째 시집을 묶는 동안 세월호 참사부터 백남기 농민의 사망, 촛불 시위에 이르기까지 늘 마음이 편치 않았다~괴물 같은 자본주의의 본질을 알수는 없지만 희생자 304명의 영령에게 지구상의 고통 받은 모든 사람에게 미안하다.”

현직 의사인 김완 시인이 세 번째 시집 ‘바닷속에는 별들이 산다’(천년의 시작·사진)를 펴냈다.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역사와 현실에

서 희생당한 이들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을 특유의 서정적인 목소리로 들려준다. 그러나 이 서정의 목소리에는 현실의 비극을 관조하면서도 포용, 초극하려는 의지가 투영돼 있다.

모두 60여 편이 담긴 시집에서 화자는 역사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단상, 현실에서 부딪치는 모순적 상황을 예리하게 들여다본다. 각각의 시들은 감이와 수사, 이미지가 조화를 이뤄 잔잔한 울림을 준다.



김완 시인

“섬에 가면 섬을 볼 수 없다는 말/ 왜 그 말을 우리는 두려워하는가/ 섬의 뱃속까지 내려가 살면 되지/ 아침저녁 들고날 때의 풍경은 다른 별/ 피지 못한 꽃, 물에 잠긴 어린 영혼들/ 볼 수 없는 바닷속에는 어린 별들이 산다”

표제시 ‘바닷속에는 별들이 산다’에

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어린 별’로 형상화한 시인의 감성이 녹아 있다. 치유되지 않는 상처투성이의 현실을 불러내 그만의 목소리로 묘사해낸다.

홍용희 문학평론가는 해설에서 “김완의 시 세계는 사회역사적 층위는 물론 섬세한 개인사적 층위에서도 비판적인 아픔을 느끼고 견디면서 이를 스스로 넘어서는 포월(超越)의 세계를 견지하고 있다”고 평한다.

한편 광주 출신의 김완 시인은 2009년 ‘시와 시학’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시집 ‘그리운 풍경에는 원근법이 없다’, ‘너덜경 편지’를 펴냈다. 현재 광주 보훈병원 심혈관센터장으로 있으며 광주전남작가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거리로 나온 뮤지컬·도서관 문화마당

광주프린지페스티벌 28일 프로그램 풍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장(이하 ACC광장)에서 클래식과 뮤지컬 공연의 파격적인 변신이 펼쳐진다.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7시.

공연장의 문턱을 낮추고 많은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몽친 뮤지컬 팀 ‘뮤립’은 ‘겨울왕국’과 ‘김종욱 찾기’ 등의 대표적인 뮤지컬 곡들을 ‘뮤립과 함께 힐링 뮤지컬 버스킹’이라는 주제로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을 찾는다.

클래식은 어렵고 딱딱하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거리로 나선 두 피아니스트 이인현과 김자영은 이날 ‘슈베르트 판타지 D.940’부터 ‘라라랜드 OST’ 등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이 밖에도 매직 넘버벌 퍼포먼스·마임·버블 매직쇼·놀이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총 6개 무대에서 이어진다. 공연은 ▲A무대(국립아시아문화전당광장) ▲B무대(국립아시아문화전당입구) ▲C무대(하늘마당) ▲D무대(어린아문화원입구) ▲E무대(구시청 사거리) ▲F무대(정소년



이인현

김자영

살디자인센터)에 마련된다.

공연장 주변과 연계한 축제도 다채롭다. ▲오감으로 책을 즐기는 ‘제7회 도서관 문화마당’(5·18 민주광장 및 아시아문화전당·오후 1시) ▲아시아의 문화 콘텐츠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18 아시아 컬처마켓’(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플라자 브릿지 및 하늘마당 일대·오후 5시) ▲달빛 내리는 밤에 떠나는 역사문화기행 ‘광주동구 문화재야행 달빛걸음’(옛 전남도청, 서석초등학교, 동명동 일원·오후 6시)이 예정돼 있다. 문의 062-223-0410.

〈전문재기자 ej6621@kwangju.co.kr〉



정소년 오케스트라 ‘아리랑’ 교육생 오리엔테이션 장면.

고려인 청소년 오케스트라 ‘아리랑’ 창단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려인 청소년 오케스트라 ‘아리랑’이 창단됐다.

25일 고려인청소년문화센터에서 창단식을 가진 ‘아리랑’은 단원을 확대 모집해 점차 규모를 키워 나갈 계획이다.

고려인 마을(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소재)에 창단된 ‘아리랑’은 현악기 위주의 스트링 오케스트라로 구성됐다. 명칭 ‘아리랑’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생계유지를 위해 고향을 떠나야 했던 고려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르던 노래에서 따왔다.

‘아리랑’의 창단은 광주문화재단, (주)도경건설, (사)고려인마을 등 민·관이 의기투합해 시작했다.

광주문화재단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

진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일환으로 그동안 ‘고려FM’, ‘고려인마을 방문의 날 행사’ 등을 통해 고려인마을과 인연을 이어왔다.

(주)도경건설은 악기와 단복 등 오케스트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후원한다. 이처럼 ‘아리랑’은 단순히 관이 주도하는 형식이 아닌, 민·관이 협력하여 공동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의미가 크다.

김준기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무지개다리사업의 고려인 오케스트라를 통해 고려인 아이들의 문화적 자존감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의 062-670-7466.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칼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반영구적 최신품법의 특수방수!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완벽방수

내구성보강

2중단열

지면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 A/S 정기점검

특허공법

1. 시공전

2. 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 시공후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파트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난연소재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특허공법·디자인방수·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경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062)511-0444

전남 (061)284-0485

H.P 010-6603-0405

복합 (061)683-0485

여수 (061)726-0482

순천 (061)795-0485

광양 (061)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